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2 권 제 5 호, (2004. 10), pp.845~858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
- 1990년대 이후부터 -

임 상 임*† · 추 미 경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원광대학교 대학원

Fascism Expressed in Military Looks: Since the 1990s

Sang-Lim Lim*† and Mi-Kyung Chu
Professor, Specialize in Fashion Design & Industrial,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pecialize in Fashion Design & Industrial, Won-Kwang University
(2004. 6. 12. 접수 : 2004. 9. 1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sociation of military looks with fascist aesthetics and to infer various aesthetic values of fascism expressed in military looks. The research method is documentary studies through the literature and academic papers, and examined masters' and doctors' theses, domestic and overseas books and fashion magazines, photographs and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Internet. The facism expressed in military looks is as follows: First, nationalism, reflecting the current ideology of rebellion, appeals to the original national sentiment of the masses. Second, temptation implies that fascism tempts the mass using the nature of charisma rather than by force and, by doing so, accumulates mighty power without military force. Third, mythology is utilizing images and symbols of great appeal to people for absolute power beyond the concept of time. In order to express power for the effusion of emotional energy through the vision for realities and the magical power of images. Fourth, barbarism is always harbored in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interests among ideas, economies, religions and classes on the other side of contemporary civilized society.

Key words: barbarism(야만성), mythology(신화성), nationalism(내셔널리즘), temptation(유혹성).

I. 서 론

세계화의 물결은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려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화, 유연화, 개방화, 자유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현 시기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써 시장적(市場的) 가치만을 절대시한다. 이는 곧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속에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이 생겨남으로써 시민 사회적 전체주의에 이르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파시즘 체제를 일컫는

이 논문은 2004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E-mail : sangim@wonkwang.ac.kr

다.[1] 이러한 체제는 자본주의 모순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민족주의적, 지역적 저항 외에도 여성문제, 인종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곤 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로 인한 영향력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중문화에서도 적용된다. 이데올로기는 고립된 대중에게 소속감과 동질성을 제공하는 상업주의 영향뿐만 아니라 대중 설득 기법에 길들여진 수동적인 대중을 양산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체주의란 본래 전체 속에서 개인이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사상 및 체제를 말하며,[2]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런데, 대중문화가 활성화된 1990년대 이후 전체주의는 배력적이고 호감을 사는 이데올로기적인 힘으로 다가와, 사회적 위기 상황과 서로 대립하면서도 대중문화와 상호간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는 적대적 공존 관계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미학적 경향들을 도출한다. 특히 전체주의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도 파시즘은 현재화된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전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현하여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가장 대중성을 띈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시즘은 이제 일상적 파시즘론으로 까지 등장하여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패러다임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교나 이데올로기 같은 정신적 산물이 나타날 때나 충격적인 문명 이기가 나올 때면 그 파급효과는 의식주에서 관습, 도덕, 예술 등 문화체계 전반에 걸쳐 혁신으로 나타나며 대중들의 정서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제 1 · 2차 세계대전의 산물로서 출현한 밀리터리 룩은 남성 군복에서 영감을 얻어 여성복에 새로운 패션 양상을 가져왔다.

밀리터리 룩은 제1 ·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발단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전쟁이 있던 시기에만 잠시 등장하는 일회성이 아닌, 전쟁의 영향력이 소진된 시기에도 꾸준히 등장하여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하이 패션이나 스트리트 패션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밀리터리 룩과 여기에 나타난 파시즘이 대중문화가 활성화된 오늘날의 탈문화적 위기 및 사회적 분위기를 잘 나타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밀리터리 룩을 중심으로 파시스트 미학에 근거한 상호 연관성을 감지하여 밀리터리 룩 속에서 나타난 파시스트의 다양한 미적 가치를 유추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동 · 서양의 문헌자료 및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에 관한 고찰을 위해서는 석 · 박사 논문, 국내 · 외 서적과 패션 전문지 등의 간행물 그리고 사진자료와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범위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세계화 물결로 대중문화가 양 ·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전 세계가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또한 90년대 이후 밀리터리 룩은 하위문화의 확산과 함께 더욱 다양하면서도 내적인 사상이나 상징성이 내포된 패션 테마로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고찰

1. 파시즘의 개념 및 발생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출현한 특정 정치 지배의 형태로 한정짓게 된 데부터 극히 최근까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다양한 해석과 서로 상반된 견해로 나타나고 있다.

즉 파시즘은 어떤 특정한 의미의 '~이즘'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존재해 왔으며, 해당 지역의 정치와 문화 전통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해 왔다.[3]

최근에는 다양한 개념과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파시즘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파시즘 정의를 놓고

1) 김세균, "현대사회와 정치," 서울대학교[온라인강의] (2001년 9월 6일[2002년 2월 10일 검색]); 자료출처 @http://prome.snu.ac.kr/~skkim/lecture/lecture9/mopo2001/mopo 02.htmlc90k.
2) 정기동, "全體主義 사상에 대한 사적 고찰," *군산대 현대이념연구* (1992), p. 1.
3) 토비 클라, *20세기 정치선전예술*, 이순령 역 (서울: 예경, 2000), p. 51.

"새로운 합의"라는 표현이 제기되고 있다.[4] 여기서의 새로운 합의는 신화(神話), 민족주의, 혁명이라는 세 핵심 개념을 내세워 민족 공동체의 적을 제거하고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출하게 함으로써, 파시즘에 전체주의적 성격이나 극단적 남성주의 경향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양 차 대전 중에 대중의 저지를 끌어냈던 대중운동을 일컫는다.

결국 파시즘은 민족, 제국, 국가, 신화, 유기체적 공동체 등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제 1 · 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위기의 결과로 확산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여 유럽 전체에 걸쳐 일어난 운동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처럼 파시즘이라는 용어는 이 용어가 생겨난 이탈리아어의 파쇼(fascio, 결속)의 뜻에서부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일반을 뜻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또한 정치적 통치 체제와 조직을 의미하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 속에 침투한 무의식적인 권위의식과 일상적인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파시즘의 발생 배경은 현재화된 자본주의의 모순과 그 전반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현하였고 대중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계급투쟁을 부시하고 그 대신 계급간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최근에 두드러진 파시즘에 대한 관심은 강한 국가의 요구를 요구하는 극우적인 경향[5]과 권위적인 리더십에 대한 갈망 등에 나타나는데,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의 조건 속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2. 파시스트 미학적 특성

파시스트 미학과 관련하여 학자들이 주장하는 파시스트 미학 범주에 대해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학자 스텐리 페인(Stanlen G. Payne)은 대중동원, 민족주의, 지도자 숭배, 폭력의 정당화로, 토비 클락(Toby Clark)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사실주의 개념 거부 및 진보의 거부를, 미국 문화평론가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야만적인 힘, 성의 동격, 이국적 · 미지의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한국의 미학 연구가인 진중권은 파시스트 미학에 대하여 변태적 유미주의를 내세우면서 수동성과 적극성, 예술적 세계관, 영웅주의, 공격적 신화, 민족형식, 역사화와 전쟁화, 기념적 성격, 이상적 인간미, 키치적 성격이라는 열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6] 그리고 파시즘 연구의 권위자 마크 네오클레우스(Mark Neocluse)는 미래주의에서 기술, 폭력, 속도감의 미학을 채용하였다고 표현하면서 정치와 사회를 영구적인 투쟁과 전쟁의 영역으로 개념화한 전쟁의 미학화, 즉 야만성 등을 특징적으로 내세웠다. 미학 학자 신혜경 또한 미래주의와 파시즘의 관계 연구에서 신화, 신념, 제의에 관하여 논하면서 파시즘의 전략을 정치의 심미화로 명명하였던 벤야민에 관하여 재조명하였다.[7] 로저 그리핀(Roger Griffin)은 파시즘의 새로운 합의에 의한 신화, 민족주의, 혁명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위의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내셔널리즘, 유혹성, 신화성, 야만성이라는 미학의 범주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나찌예술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은 인종차별 정책을 취하여 아리안족의 우수성과 그 혈통의 순수성 유지라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민족주의적 지향과 국수주의를 강조한 것을 말한다. 즉 파시스트들은 인종차별주의나 민족국가의 유기적 단일체 개념 등으로 인종의 우월성을 내세워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게 된다.

일례로써 기스베르트 팔미에(Gisbert Palmie)의 〈노동의 대가〉(그림 1) 작품은 민족주의적 의미가 내포된 정치화로써 시대를 알 수 없는 의상과 노란 머리

4) Roger Griffin, "The Primacy of Culture: The Current Growth(or Manufacture) of Consensus within Fascist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7(2002), pp. 21-43.
5) 이국영, "파시즘과 대중기반," *국제정치논총* 제38집 3호(1998), p. 45.
6) 강은만, *인물과 사상 ⑦*, (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1998), pp. 191-212.
7) 신혜경, "미래주의와 파시즘의 관계," *미학 제33집* (2002), pp. 179-182.

〈그림 1〉 Gisbert Palmie, Rewards of Work.
(*Art of the Third Rich*, p.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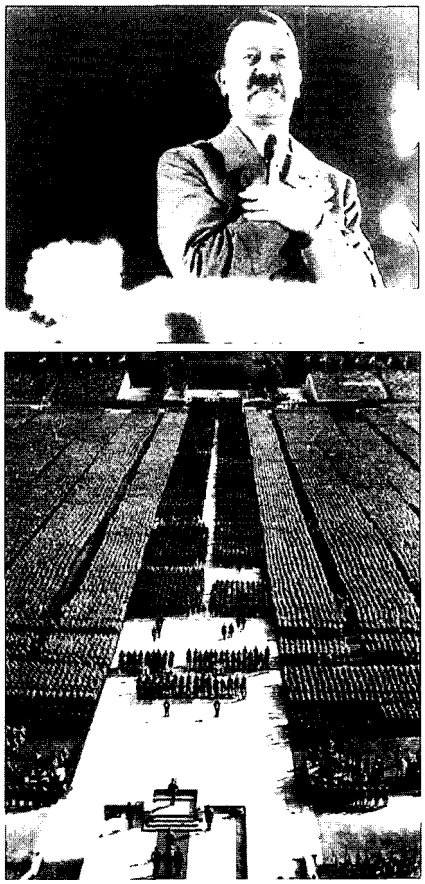
색으로 자민족의 혈통적 순수성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8]

파시스트 미학에서의 내셔널리즘은 자기 민족의 유지와 발전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기지만[9] 가끔은 민족이상의 구현체(具現體)라고 인정되는 국가의 이념을 지상의 존재로 인격화하지만 마침내 민족의 구성원인 개인의 존재가 설 자리를 잃게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다.

2) 유혹성

유혹성은 그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조작된 설득이나 위협 그리고 기만 등의 전략을 연상시키는 단어로써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10] '유혹은 일종의 침투과정'[11]이라고 했던 로버트 그린의 말처럼 파시스트 미학에서의 유혹성은 지배 헤게모니와 대중성이라는 대중없는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의 기술로 이용된다.

영화 〈의지의 승리〉(그림 2)에서는 정치집회를 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적 유혹을 극화시킨다. 이처럼 정치집회나 대중집회 영화에서는 대중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중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하거나 민족공동체를 이루자는 애국심으로 대중을 자극하여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 또한 조각상에서는 여성의 우아함과 헌신적이며 순응하는 포즈를 암도적으로 표현하였는데(그림 3)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잔 손택이 "파시스트 이상(理想)은 국익을 위하여 성적인 에너지를 정신적인 힘으로 변형시켰다"[12]고 한 것처럼 여성의 역할을 한층 더 과시적인 면으로 표현한다. 즉 여성은 가족에나 모성애의 중추적 역할로써, 그리고 국가를 위한 여성상으로써 표현되어 여성잡지에 노르만족의 여성전사나 리펜슈탈같은 현대 직장여성 등 긍정적인 여성상이 자주 실린다.[13]



〈그림 2〉 Leni Riefenstahl, Triumph of the Will, 1934.
(*20세기 정치 선전예술*, p. 55)

8) 토비 클락, *Op. cit.*, p. 59.
9) 한상길, 임상록, "세계화 시대의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시민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Vol. 36, No. 4 (1998), p. 56.
10) 토비 클락, *Op. cit.*, p. 7.
11) 로버트 그린, *유혹의 기술*, 강미경 역 (서울: 이마고, 2002), p. 11.
12) Susan Sontag, "Fascinating Fascism," in *Under the Sing of Saturn*, Farrar, Straus, Giroux, 1975. @http://www.anti-rev.org/.
13) 토비 클락, *Op. cit.*, p. 72.

〈그림 3〉 Wilhelm Tank, 춤추는 여인, 1938.
(*나찌미술*, p. 26)

다른 한편으로 파시스트들은 정치 선전을 위하여 순수예술과 대중문화를 융합시키려는 효과로 키치 기법을 활용하였다. 영화 〈올림피아〉에서 리펜슈탈은 스틸사진 뒷배경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두고, 앞배경에서는 고전 조각 작품 비너스들의 디스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전혀 어울리지 않을 두 배경으로 키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이는 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숭배를 획득하기 위한 나치즘 특유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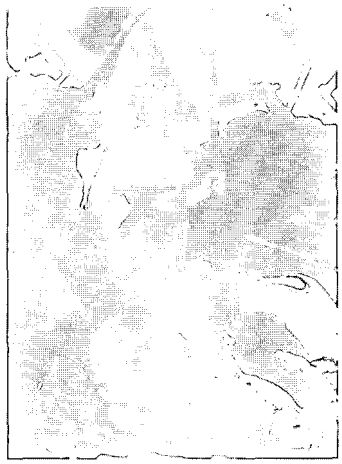
결국 파시스트의 유혹성은 파시스트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술책 중의 하나로 대중없는 대중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선전의 기술로 볼 수 있다.

3) 신화성

파시스트들은 파시즘 출현 직전의 시대는 부정하고 다소라도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파시즘의 원형(原形)을 찾으려고 하였다.[14] 파시스트에 있어서 신화적 측면은 민족 공동체가 몰락의 위기 속에서 과거 자유주의적 질서 속으로 향한 새로운 모습으로의 부활, 재생하고픈 해결책의 일환이다.

회화에서 뷔어클레(Albert Burkle)의 〈투쟁하는 농부〉와 캄프(Arthur Kampf)의 〈헴밍스테트의 성녀〉는 그 제목이 잘 말해주듯이 농민의 모습을 영웅적인 단일 투쟁자로서 그리고 있다(그림 5). 또한 아르노 브레커는 〈Warrior's Departure〉(그림 6)에서 칼을 쥔 힘찬 전사의 모습을 신화속의 이미지로 부각시켜 강한 육체로 표현하였다. 또한 도메(Wilhem Dohme)의 그림에서는 지도자로써 사자문장을 가진 하인리히(Heinrich)가 개척자인 중세기사와 함께 동쪽을 향

〈그림 4〉 Leni Riefenstahl, Olympia, 1936.
(*Art of the Third Rich*, p. 24)



〈그림 5〉 Arthur Kampf, 헴밍스테트의 성녀, 1939.
(*나찌미술*, p. 123)

14) 앙리 미쉘, *파시즘*, 정성진 역 (서울: 탐구당, 1984), p. 15.

〈그림 6〉 Arno Breker, Warrior's Departure.
(*Art of the Third Rich*, p. 198)

〈그림 8〉 Hubert Lanzinger, The Flag Bearer.
(*Art of the Third Rich*, p. 18)

하여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나 하버트 라진거의 히틀러를 십자군의 기수로 묘사한 작품에서는 중세적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그림 7), (그림 8).

결국 파시스트에게서 신화는 단순히 흥미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에 있어서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야만성

파시스트들은 전쟁을 어떠한 합리적 원리나 사회·정치적 원인 때문에 감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에 빠져들기 때문인 것으로 전쟁, 그 자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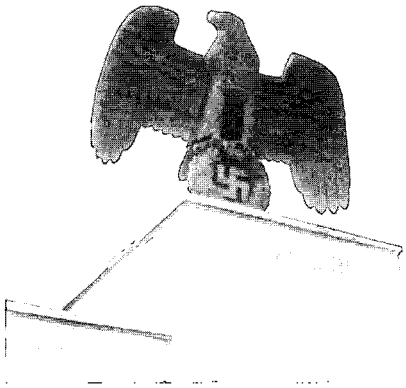
〈그림 7〉 Wilhelm Dohme, Peasants Presenting Harvest Gifts of Gratitude to Henry Lion.
(*Art of the Third Rich*, p. 29)

찬양하였는데[15] 파시스트의 야만성은 먼저 나치의 반(反)사실주의가 나타난 전쟁에 관한 예술작품의 표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쟁의 표현은 전쟁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다가오는 전쟁을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준비에서부터 위기적인 면까지 과잉포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지난 전쟁과 모든 미래의 전쟁은 사전에 정당하게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종족적 지배욕구에 대한 당연한 투쟁이라는 점으로 더욱 야만시하였다(그림 9). 또한 나찌 조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념비화되거나 상징적으로 찬양되는 커다란 독수리 상 등에서 파시스트의 약탈성과 공격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16] 정확한 비례에 의한 실물크기보다 크게 확대한 거대한 형태의 구조로 표현하였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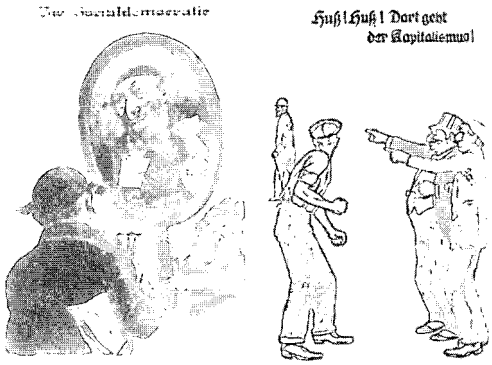
한편, 19세기말의 작품(그림 11)은 반자본주의 풍자화로써 이는 독일 파시스트가 유통업계의 중간업자였던 유태인들을 소시민층과 경쟁하거나 착취함을 풍자한 것이다. 이것은 파시스트가 자본주의에 불만을 품은 계층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라기보다도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모든 운동을 대리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바꾸었던 방법이다.[17] 이것은 파시스트의 반자본주의와 반부르주아를 위장한 하

15) 마크 네오클레우스, *파시즘*, 정준영 역(서울: 이후, 2002), p. 57.
16) 정미희, *나찌미술* (서울: 미진사, 1989), p. 30.
17) 정미희, *Op. cit.*, p. 208.

〈그림 9〉 Paul Mathias Padua, The Tenth of May, 1940. (*Art of the Third Rich*, p. 164)



〈그림 10〉 Kurt Schmid-Ehmen, Eagle for the Luitpold Arena, 1934. (*Art of the Third Rich*, p. 189)



〈그림 11〉 반자본주의에 대한 풍자화, 19세기 말. (*나찌미술*, p. 212)

나의 계략으로서 그것은 도리어 파시즘이 종식된 후 후기자본주의에 의하여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파시스트 미학에서는 내셔널리즘, 유혹성, 신화성, 야만성의 네가지 미학적 범주가 추출되었고 여기에 근거하여 밀리터리 룩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복식에 표현된 파시즘 분석

1. 복식에서의 파시즘 출현배경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서의 파시즘을 밀리터리 룩으로 한정지어 연구하였다. 이는 복식에서의 정치성이나 저항성은 일반 복식에서도 물론 표출되지만 밀리터리 룩에서 더욱 표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을 것으로 사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밀리터리 룩은 1·2차 세계대전과 이데올로기의 상관관계로 복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에[18] 당시에 출현한 파시즘적 요소를 잘 반영해준다고 본다.

1990년대부터는 거세게 몰아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 등은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켜 새로운 형태의 반자본주의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모든 체제나 질서, 환경 그리고 가치관 등이 일시에 변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9] 또한 대중문화의 활성화와 함께 90년대는 공산주의 붕괴로 인한 20세기초에 나타난 전체주의 관심이 부활되면서[20] 대중의 의식뿐만 아니라 일상의 규범이나 종교, 전통, 관습, 문화 등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파고드는 파시스트 미학은 90년대부터 패션에 다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밀리터리 룩에서의 파시즘의 표현은 막연한 위험성과 기능성의 개념이 아닌 세계화에 따른 지배자와 피지배자적 입장에서 각 나라의 민족이 현재 위기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로 부활키 위한 바램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는 밀리터리 룩으로 인한 대중적 지지 및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채금석, 양숙화,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복식* 24호, 1995, p. 129.
19) 신현종, "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한국무역학회 논문집* (2000년도 [2003. 7. 5. 검색]); 자료 출처 @http://yu.ac.kr/~shinhj/html/aa1.htm.
20) 임지현, 김용우,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2004), p.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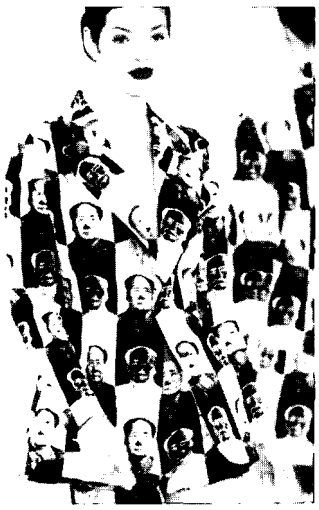
2. 복식에 표현된 파시즘 특성

1) 내셔널리즘

밀리터리 룩에서의 내셔널리즘은 민족적 성격을 중심으로 시대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예로써 각 디자이너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면에서 달리 표현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문제라 할 수 있다.

90년대는 구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패션계에서는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인물을 그대로 의상에 반영하였는데 특히, 1995년 Vivienne Tam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4인방 중 한사람이었던 모택동의 사망 20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재킷과 롱 드레스에 모택동의 흉상 사진을 그대로 작품에 반영하였다(그림 12).

1997년은 150년만에 중국에 홍콩이 반환되는 시기로 이후로 패션계에서는 중국풍이 또 다시 유행하였다.[21] Christian Dior은 중국 고전 인민복을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역사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셔널리즘이 표현된 의상은 다른 트랜드보다 훨씬 더 사회 문화적 상황과 맞아떨어진 것 같다(그림 13).



〈그림 12〉 ViVienne Tam. ('95 *S/S collection*, p. 117)

〈그림 13〉 Christian Dior. (*'00 Gap Press* Vol. 25, p.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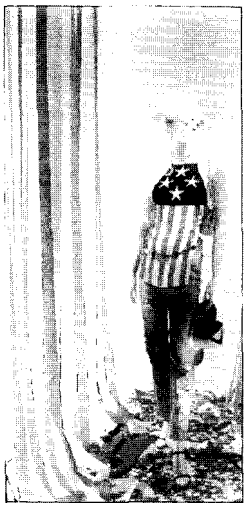
WTO 가입을 계기로 점점 거대해져만 가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노골적인 중국풍 의상은 내셔널리즘과 함께 모던함으로 지금도 현대인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밀리터리 룩은 레이어드 룩, 그런지 룩과 부합되었고 서로 상반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섞이고 혼합되는 혼란스런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대단히 강렬한 충격과 복잡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22]

최근에 국기는 내셔널리즘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자주 등장하는데 미국의 성조기는 다민족이 존재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복식에 자주 등장하였다(그림 14), (그림 15). 또한 영국의 국기인 유니온 잭 또한 Paul Smith에 의하여 밀리터리 재킷의 모티브로 등장하여 심플하면서도 유니온 잭 색상과 패턴, 공단의 고급스러움으로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학자들은 세계화로 인하여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강력한 종족주의의 물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탈(脫)민족주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세계화에 의한 초국적 자본의 전 세계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관점으

21) *HARPER'S BAZAAR* FEBRUARY 2003, p. 252.

22) 엄소희, "현대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 125.



〈그림 14〉 뉴욕의 성조기 물결. (*'01 Vogue Korea Nor.* p. 224)

〈그림 15〉 You Young Coveri. (*'01 F/W collection*, p. 240)

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디자이너 Oscar de la Renta는 그의 '92~93 S/S콜렉션에서 '쿠바의 남동쪽에 위치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복식을 재현'(그림 16)하였다.[23] 이 작품은 전위의 상징으로서 군복을 견장 장식 등

〈그림 16〉 Oscar de la Renta. (*'92-93 S/S collection*, p. 96)

으로 풍자하였는데[24] 다양한 색상의 혼장과 에스닉한 모자, 금색이 주는 차가움 등에서 더욱 이국적인 분위기이다.

밀리터리 룩에서의 내셔널리즘은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물결에 의하여 민족자결주의, 민족해방주의 등 혼합적 성격으로 나타났는데 엘리트 패션에서 벗어난 민족적 이미지와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저항적 이미지 그리고 전쟁, 분쟁, 기아 등에 허덕이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존 의식 등으로 표현되었다.

2) 유혹성

유혹(Temptation)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권력과 같은 것[25]으로 본질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리로서 유혹을 제시한 장 보드리야르 말처럼[26] 이제 유혹은 남녀 관계의 차원에서 정치적인 면을 포함해 모든 분야를 움직이는 핵심 코드로 급부상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밀리터리 룩에서의 유혹은 권력을 향한 욕망의 표현으로[27] 기능성을 위한 의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치적이나 과시적 그리고 키치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23) '92~'93, *Mode et Mode*, p. 96.
24) 염소희, *Op. cit.*, p. 125.
25) 로버트 그린, *Op. cit.*, p. 6.
26) 장 보드리야르, *유혹에 대하여*, 배영달 역 (서울: 백의, 2002)
27) 로버트 그린, *Op. cit.*, pp. 8-9.

Louis Vuiton은 2001 S/S 콜렉션에서 검정색의 바탕에 색시하면서 화려한 느낌을 주는 스트라이프를 미스듬히 한 사선무늬 군복에 넓은 카고포켓과 독일 군용모자 및 십자 훈장이 특징인 룩을 선보였다(그림 17). 그리고 그림 속에 나와있는 attention!이라는 구호, 그리고 웃고 있는 모델의 미소 등은 제3제국 당시 파시즘 정치선전 중의 하나였던 포스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중을 휘어잡았던 양식화된 얼굴 표정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정치성을 띤 유혹으로 다가온다. 또한 과시성은 자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시선과 지지를 이끌 수 있기에 더 이상 과거 지향적인 전통적인 여성성은 시선을 끌지 못한다. 영화속의 여주인공을 '21세기 여전사'[28]로까지 표현하면서 화려한 액션에 여성의 관능미를 표현함 속에는 여성이 우월하다는 메시지도 드러낸다. 탑과 핫팬츠만으로 만들어낸 영화속의 라라의 밀리터리 룩은 아주 모던하고 미니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곱난추나 포켓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밀리터리 룩의 개념을 아주 유연하고 캐주얼하게 풀어낸 멋진 조합이다. 물론 이처럼 밀리터리 룩에서의 바디 컨셔스 스타일이나 최소한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스타일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은 과워풀한 여성의 힘과 성의 초월 등의 여성해방 이미지로 여성의 역할을 과시함을 엿볼 수 있다(그림 18). 그리고 K. Lagerfeld는 '92년도 S/S 컬렉션에서 상의는 아웃 포켓이 특징인 어두운 인디고 계열의 색상으로 차분하고 가라앉는 느낌을, 하의는 핫 미니 스커트를 시스루 룩으로 처리, 고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그림 19). 이것은 현대적 기능주의와 고전적인 스타일의 혼합물 속에 내재되어 조형적 부조화 측면에서 키치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밀리터리 룩에서의 유혹성은 정치적, 과시

〈그림 17〉 Louis Vuiton. (*'01 Harper's Bazaar Korea*)

〈그림 18〉 영화 [툼레이더Ⅱ]의 여전사이미지.

〈그림 19〉 Karl Lagerfeld. (*'92 F/W Mode et Mode*, No. 277, p. 8)

28) "'섹-여자'들이 몰려온다," 동아일보, 2003년 6월 27일, C8면.

적, 키치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는 파시스트가 대중의 감각을 자극,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권력을 축적하려 했던 것처럼 파시즘은 현대인의 생활 속 깊이 침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사회 · 문화적 설득력으로 지배 헤게모니와 대중성을 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신화성

신화는 인류의 잊혀진 능력을 환기시켜 고착된 문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도 하지만,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파시스트에 있어서 신화성이 과거 자유주의적 질서 속으로 향한 새로운 모습으로의 부활하고픈 일환으로 영웅이나 중세적 이미지를 빌려 왔듯이 밀리터리 룩에서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의 바램이라 할 수 있는 영웅주의나 새로운 중세에서 동질성을 찾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 여성복식에 있어서 영웅성은 권위적 이미지의 밀리터리 패션이 위엄있는 군인의 영웅적인 모습을 자신에게 투사하고픈 여성들 의지의 소산이었다.[29] Castelbajac 컬렉션에서는 노동의 영웅성을 자극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제복 스타일은 아니지만 투사에게나 어울릴 법한 붉은색 계열의 짧은 튜닉 스타일이 특징이다. 이는 1930년대 말 선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노동의 영웅화적인 모습과 함께 'paradise'라는 선전적인 용어를 담고 있는데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호소하는 듯하다(그림 20).

2003년 S/S 콜렉션의 D&G에서도 탑과 블라우스에 고대 신화와 명화그림을 표현하여 전통적인 기존의 밀리터리 룩과는 사뭇 다르게 즉각적이고 신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웅성 이외 파시스트의 신화성에서 중세적 이미지를 배제할 수 없다. 타나까 아끼히꼬(田中明彦)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현재의 세계시스템을 과거 유럽의 중세로의 이행과정과 비슷하다"[30]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중세는 현재의 국제질서와 유럽의 중세에서 동질성을 주체의 다양성과 이데올로기의 보편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것이다. 밀리터리 룩에서는 갑옷, 투구, 칼등의 무기, 후드, 복식의 기하학

〈그림 20〉 Castelbajac. (*'01 F/W collection*)

적 문양의 모티프, 체형을 드러내지 않은 편안한 실루엣 등으로 중세의 신비성이나 엄격함 등을 차용하고 있다(그림 21).

이처럼 신화성에서는 영웅적 그리고 중세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시 ·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상징물 등을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 및 통합으로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Gilles Rosier(L), Eric Bergere(R). (*'01 Harper's Bazaar*, p. 110)

29) 이화정,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1.
30) "21세기 지구촌 '또다른 中世'도래," 문화일보, 2000년 2월 16일, 수요일, 문화면.

4) 야만성

야만성은 현대문명 사회 이면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계층간의 이해 관계에 항상 대립이나 갈등 등으로 나타난다. 20세기 전체주의 정권들이 내세웠던 파시즘의 야만적인 미학은 건축, 패션, 사진, 영화, 패션쇼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패션에서의 예로써는 고대 그리스식의 속옷과 홍갑 그리고 몸 위로 천을 늘어뜨리거나 몸을 묶는 형식의 옷들이 소개되고 있다.[31] 밀리터리 룩의 야만성은 야만적인 이데올로기 표현으로는 극적인 효과에 호소하거나 대중에게 스스로의 동원을 불러 일으킬 힘과 투쟁을 상징하는 오브제 등이 이용되었다. 즉 권총, 밧줄, 홍갑, 곤봉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도구 등으로 나타났다.

아방가르드의 젊은 선두 디자이너, Alexander Mcqueen은 '96/97 컬렉션에서 전두 장면을 의복의 분양으로 사용하고 십자가 상을 새긴 가면을 장신구로 내세워 반타지 룩에 가까운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여기서의 작품은 웃음과 공포, 재미와 혐오 등과 같은 두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점은 몰르가 언급했었던 폭력 없는 전체주의는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을 치장하고 우리의 삶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야만성으로 볼 수 있다. Christian Dior는 2001년 S/S와 F/W 콜렉션에서 총과 밧줄, 홍갑 등의 소품을 특징으로 하여 파시스트의 미학에서 엿볼 수 있는 공격적인 이미지이자 남성적인 힘과 권력 그리고 훈육과 복종 등을 표현함을 엿볼 수 있다(그림 22). 또한 적절적인 투쟁적 무기 표현 특징인 Gorany Peikoskiy의 작품은 여전사의 무력과 지배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표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하얀색 의복에 검정색의 총을 쥔 모습이 어딘가 선전적인 모습이다(그림 23).

복식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야만성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오브제 등을 차용하여 미래에 가능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파시즘의 현대적인 변종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램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Christian Dior. (*2001 Collezioni* No. 53. p. 16)

〈그림 23〉 Gorany Peikoskiy. (*2000/2001 A/W Haute Couture*, gap press p. 9)

다른 한편, 복식에서 물질문명에 대한 야만성은 전형적인 밀리터리 룩에서 느껴지는 권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풍자적인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 예로 자본주의 부를 상징하는 지폐를 탑 등으로 사용하거나 권총과 지폐를 데님 소재의 드레스에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것 그리고 지폐에 구멍을 내고 프린

31) "파시스트 패션이 뜨고 있다." 인터넷 동아일보 (2000년 11월 14일 등록[2001년 3월 10일 검색])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2000/11/12/living/12FASC.html.

〈그림 24〉 Alviero Martini. (*2001 A/W Houte Couture*)

트에 악센트를 준 패션도 나타났다(그림 24). 이처럼 밀리터리 룩에서는 인간보다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야만성과, 경제불황에 따른 좌절감과 문명의 위기로 인한 현대 문명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물질문명에 대한 야만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Ⅳ. 결 론

1990년대 들어 공산주의 붕괴와 대중문화의 활성은 학자들로 하여금 전체주의 관심을 부활시켰다. 그 중에서도 힘과 지배를 상징하는 파시즘은 밀리터리 룩과 1·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상관관계가 있기에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연구로 본다.

파시스트 미학에 근거하여 밀리터리 룩에서의 파시즘은 내셔널리즘, 유혹성, 신화성, 야만성 등 4가지 범주로 크게 표현되었다. 첫째, 내셔널리즘은 시대적 반역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대중의 원초적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밀리터리 룩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약소민족에 대한 동경 등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유혹성은 강제적이지 않고 카리스마의 본질을 이용하여 대중을 유혹함으로써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막강한 권력을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밀리터리 룩에서는 권력의 이미지를 담은 정치적 유혹과 이성을 위한 유혹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적 유혹, 그리고 전위적 효과 등을 내포하는 키치적 유혹 등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신화성은 시간개념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위하여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이미지와 상징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밀리터리 룩에서는 영웅성의 내포와 중세적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야만성은 현대문명 사회의 이면에 이념적, 경제적, 종교적, 계층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 등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밀리터리 룩에서는 인간보다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야만성과, 경제불황에 따른 좌절감과 문명의 위기로 인한 현대 문명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물질문명에 대한 야만성 등으로 표현되었다.

파시즘은 많은 점에서 독창적인 새로운 정치세력이었고 인간이나 사회에 관한 20세기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재검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다양한 파시스트 미학을 근거로 한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파시즘은 세계화 물결 및 자본주의 모순, 현대 문명에 대한 인간의 위기 등을 대중의 심리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각기 이해 타산이 다른 대중들의 독자적 관심사를 공략, 선동하기 위하여 다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파시즘의 궁극적인 상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복식에서의 파시즘은 파시즘이 와해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스타일을 바꾸어 다시 나타날 것이며 대중의 다변적인 가치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래패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파시스트 미학을 토대로 밀리터리 룩에서의 파시즘을 살펴보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전체주의 예술을 토대로 하여 연구된 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준만 (1998). *인물과 사상 ⑦*. 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임지현, 김용우 (2004). *대중독재-강제와 동의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정미희 (1989). *나찌미술*. 서울: 미진사.

그린, 로버트 (2002). *유혹의 기술*. 서울: 이마고.

네오클레우스, 마크 (2002). *파시즘*. 정준영 역. 서울: 이후.

미셸, 앙리 (1984). *파시즘*. 정성진 역. 서울: 탐구당.

보드리야르, 장 (2002). *유혹에 대하여*. 서울: 백의.

클락 토비 (2000). *20세기 정치선전예술*. 이순령 역. 서울: 예경.

엄소희 (1998). "현대 복식에 표출된 아방가르드 의미의 패러다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화정 (2000).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경 (2002). "미래주의와 파시즘의 관계." *미학* 33집.

이국영 (1998). "파시즘과 대중기반." *국제정치논총* 38집 3호.

정기동 (1992)."全體主義사상에 대한 사적고찰." *군산대 현대이념연구*.

채금석, 양숙희 (1995).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복식* 24호.

한상길, 임상록 (1998). "세계화 시대의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 시민성을 중심으로." *교육학 연구* 36권 4호.

"센~여자들이 몰려온다 (2003년 6월 27일)." 동아일보.

"21세기 지구촌 '또다른 中世'도래 (200년 2월 16일)." 문화일보.

김세균 (2001). "현대사회와 정치." 서울대학교[온라인강의] (2001년 9월 6일[2002년 2월 10일검색]); 자료출처@http://prome.snu.ac.kr/~skkim/lecture/lecture9/mopo2001 mopo02.html:c90k.

신현종 (2000). "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한국무역학회 논문집 [2003. 7. 5. 검색]); 자료 출처 @http://yu.ac.kr/~shinhj/html/aa1.htm.

"일상 파고드는 이데올로기 美주도 파시즘 시대 우려(2003년 10월 6일)." 경향뉴스[온라인신문];자료출처 @http://www.khan.co.kr/news/print.khn?artid=200310061843581

"파시스트 패션이 뜨고 있다(2000년 11월 14일)." 동아일보(온라인 신문);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2000/11/12/living/12FASC.html.

Griffin, Roger (2002). "The Primacy of Culture: The Current Growth(or Manufacture of Consensus within Fascist Studies." *Journal of Contemporary*. Vol. 37.

Sontag, Susan (1975). "Fascinatting Fascism." in *Under the Sing of Saturn, Farrar, Straus, Giroux*. @http://www.anti-rev.org/

HARPER'S BAZAAR FEBRUARY. '03.

Mode et Mode. '92-'93.